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aaa2b0203db216c41ddc9067918f34d20d4b25e522550fded087e8e028b0479d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1. 9. 27
해외동향부 (제 6010)

■ **주요 뉴스: 전세계 중앙은행, 통화정책 완화 종료와 긴축 사이클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제·지출 법안을 가결

○ ECB 총재,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내년부터 진정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지방정부, 헝다그룹의 주택매입 자금 전용 관리계좌를 개설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헝다그룹 우려 완화와 경제성장 지속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상승[+0.5%],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저가 매수와 FOMC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배경
유로 Stoxx 600 지수는 헝다그룹의 이자 지급 여부 등을 반영하여 주초 급락 이후 반등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강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보합,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상승과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 요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5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1% 상승, 한국 CDS 상승

		9/24일	9/1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455.5	4,433.0	0.51%
	유럽	463.29	461.84	0.31%
	중국	3,613.1	3,614.0	-0.02%
	일본	30,249	30,500	-0.82%
	한국	3,125.2	3,140.5	-0.49%
환율	달러지수	93.33	93.20	0.14%
	유로화	1.1720	1.1725	-0.04%
	엔화	110.73	109.93	-0.72%
	위안화	6.4662	6.4661	0.00%
	원화	1,176.5	1,175.0	-0.13%

		9/24일	9/17일	전주말대비
국채 금리 10y	미국	1.45%	1.36%	9bp
	독일	-0.23%	-0.28%	5bp
CDS 5y	한국	19bp	18bp	1bp
	중국	44bp	37bp	7bp
위험 지표	EMBI+	367	354	13bp
	VIX	17.75	20.81	-14.70%
원자재	WTI유	73.30	71.97	1.85%
	구리	428.8	424.6	0.99%
	금	1,750.4	1,754.3	-0.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전세계 중앙은행, 통화정책 완화 종료와 긴축 사이클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

○ 연준은 11월 테이퍼링 시행을 시사했고, 영란은행은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 노르웨이는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브라질의 경우 대출 비용이 증가. 이러한 통화정책 변화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 등이 거론

○ 그러나 최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 기대가 이전보다 약화.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은행은 이로 인해 완화기조를 유지. 이를 고려할 때, 각국의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점진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

○ 다만 TD증권의 James Rossiter는 중앙은행들이 성장둔화 우려로 정책 전환을 늦출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재정지출 축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 이는 시장 기대와 달리 전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제·지출 법안을 가결**

○ 찬성 20, 반대 17로 해당 안건 통과. 하원 본회의 심의는 27일 이루어질 예정.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주 5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세제·지출 법안은 규모가 3조5000억달러에서 축소될 수 있다고 언급

■ **연준 파월 의장, 코로나 19 침체 이후의 경기회복은 전례 없는 수준**

○ 코로나 19 여파로 소비자 행동의 변화,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등 향후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언급.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

■ **ECB 총재,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내년부터 진정될 것으로 예상**

○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물가상승이 대부분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결국 장기 평균에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 등을 고려 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

■ **독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야당인 사민당이 근소하게 승리**

○ 사민당 득표율은 26%로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의 24%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 **중국 지방정부, 헝다그룹의 주택매입 자금 전용 관리계좌를 개설**

○ 최소 8개 지방정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주택매입을 위해 납입한 자금을 헝다그룹이 채무상환 등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유도. 이번 결정은 정부가 헝다그룹의 회생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 헝다그룹 전기차사업부는 전략적 투자 혹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 및 공급업체에 대한 필요자금 지급과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

○ Principal Global Investors의 Chung Wan은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대규모의 리스크 수용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침묵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 **노무라, 중국의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8.2%→7.7%)**

○ 친환경 정책 강화와 전력부족에 따른 공장 폐쇄 등이 성장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최근 당국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석탄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 정부의 산업규제 등도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 당국의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전력공급 제한 등으로 운남 등에 소재한 15개 상장사가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첨언

■ **미국·일본·호주·인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 4개국은 법의 지배, 항해 및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주의 가치의 제고, 개별 국가의 영토 보존 등을 지지한다고 강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국제법을 따른 질서를 추구할 것이라고 부연

■ **테슬라 CEO,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

○ 일론 머스크 CEO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으며, 내년에는 양호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내구재 수주, 유로존 8월 M3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합의 실패에 대비한 대응 지침 재검토 필요 - WSJ**
(Debt-Limit Standoff Could Force Fed to Revisit Emergency Playbook)

○ 의회 부채한도 상향 합의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10월과 유사한 상황에 거론되었던 연준 대응 지침의 재검토 필요성 부각. 이는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무불이행 상태의 국채를 매입하고, 보유 국채를 매도하는 옵션 등을 지칭

○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과 비상계획 공개 시 부채한도 상향 합의 지연 등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시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경고

○ 또한 파월 의장은 의회 합의 실패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준 조치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개적 발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 **국제 유가, 수요 증가와 공급 차질로 수개월 간 상승세 유지 전망 - 블룸버그**
(Oil's Going to Have a Good Winter, Even If You and I Don't)

○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전력 생산 등에 필요한 원료를 석유로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이는 겨울 기간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 아울러 유럽의 미국 여행이 허용되는 11월부터 항공 연료 수요 증가가 예상

○ 허리케인 아이다의 8월 말 멕시코만 강타로 동지역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내년 초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 앙골라 및 나이지리아의 생산량 감소, 이란 핵 협상 재개, 러시아의 생산 정체, 사우디의 증산 한계 등도 석유 공급의 장애 요인

■ **중국,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부작용에 직면 - Financial Times**
(China is just as susceptible to capitalism's ill effect)

■ **중국의 전력소비 규제, 역내 성장 저해 및 세계 공급망 차질로 연결 가능성 - 블룸버그**
(China's Power Crunch Is Next Economic Shock Beyond Evergrande)

■ **미국 민주당, 상속세 개혁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금 개선안이 필요 - Financial Times**
(Democrats missing big picture on taxe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